



# 기업개요

## 2015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TF1  
부이그 텔레콤

**BOUYGUES**

미래 건설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 목차

02	<b>부이그 현황</b>
09	<b>부이그 그룹 간략 재무제표</b>
12	<b>건설부문</b>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건설 및 서비스 업체 부이그 건설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부이그 부동산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콜라스
24	<b>미디어</b>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TF1
30	<b>통신</b>
	고객에게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하는 부이그 텔레콤
36	<b>알스톰</b>

기업개요는 부이그 그룹 홍보부가 발간한 문서이다. 2016년 3월, 디자인 - 제작: TERRE DE SIENNE 번역: 고은경

인쇄: PEFC, FSC 및 ISO 14001 인증 및 친환경 인쇄 Imprim'vert® 라벨을 보유한 PDI 인쇄소(발-두아즈 지방).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숲의 목재를 사용한 인쇄 용지 사용.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한정 인쇄한 문서이므로 본 문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부이그는 프랑스의 종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조직, 자원 조달, 지원하는 Ecofolio에 환경기부를 합니다.

부이그 연례보고서의 원본은 2016년 3월 17일부터 [www.bouygues.com](http://www.bouygues.com) 및 그룹 인트라넷인 ByLink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방콕의 마하나콘 빌딩 (부이그 건설); 리옹의 에너지 생산 건물 단지 허카리 (부이그 부동산); 태양 에너지 도로 와트웨이 (콜라스); TF1의 앵커 오드리 크레스포-마라; 벨리지의 부이그 텔레콤 매장. **사진 출처:** S. Arbour (p. 20), J.-F. Baumard/Fab/TF1 (p. 29), V. Bauza (표지, p. 6), J. Bertrand (표지, p. 14, 20), L. Blossier (p. 11, 19), Y. Chanoit (p. 19), C. Charzat/TF1 (p. 24, 29), 콜라스 사진자료보관소 (p. 17), F. Darnigny (표지), A. Da Silva/Graphix-Images (p. 18, 35), F. Deguent (표지), H. Douris (p. 20), Drone Aero Services (p. 20), A. Février (p. 4, 12), E. Fradin (p. 35), N. Gouhier (p. 8), P. Guignard/Air-Images (p. 16), Ibo/Sipa (p. 26), N. Imre/Graphix-Images (p. 36), M. Lafontan (표지, p. 30), S. Lavoué (p. 1), E. Richardson - Capa Pictures / Alstom (p. 37), P. Le Roux (p. 28), É. Matheron-Balay (p. 32), J.-P. Mesguen (p. 20), P. Perrin/Zoko Productions (p. 8), 저작권 보유 (p. 8, 1번 사진), L. Samain (p. 6, 8), T. Shimmura (p. 15), 부이그 텔레콤 (p. 8, 34, 35), TM® Rugby World Cup Limited 2008® AFP (p. 29), L. Zylberman/Graphix-Images (p. 2, 5, 7). **건축사무소:** Agence Nicolas Michelin et Associés - Atelier 234 - Wilmotte et Associés (p. 2), Architecture Studio (p. 20), CRB Architectes (표지, p. 6), Harmonic + Masson & Associés / Comte Vollenweider (p. 17), Jean de Gastines (p. 19), Kengo Kuma and Associates (표지, p. 6), Nicolas Maugery / Yad Initiative (p. 8), Ole Scheeren (표지, p. 12),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p. 11), Shigeru Ban (p. 19), Valode & Pistre architectes (p. 18).



Agissez pour le recyclage des papiers avec Bouygues SA et Ecofolio.



Certifié PEFC  
Ce produit est issu de forêts gérées durablement et de sources contrôlées.  
10-31-1174 pefco-france.org



# 마르텡 부이그 회장의 인사말



프랑스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부이그 그룹의 변화 전략은 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부이그 그룹은 좋은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은** 프랑스 시장의 하락 세에 적응하는 동시에 국제부문에서 약진을 계속하였습니다. 국제부문은 이제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 수주잔액의 59%를 차지하는데, 2014년 12월 말 기준 비중은 53%였습니다. **TF1은**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도 높은 시총률을 기록하며 **리더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편 **부이그 텔레콤은** 공세적인 전략을 편 결과 모바일 영업의 역동성 회복과 고속 인터넷 부문의 지속적 성장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일궈냈습니다.**

부이그는 기존 시장과 새로운 부문의 시장을 막론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으로써 **혁신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수의 대규모 친환경지구 입찰에 참가하여 프로젝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부이그 부동산은 유연하고 협업이 용이한, 기업을 위한 근무 공간 서비스인 넥스트도어를 출시하였습니다. TF1은 제작사 뉴웬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고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로부터 LCI의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허가를 받는 등, 콘텐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이그 텔레콤은 4G 부문 리더십을 공고히 하였는데, 51%의 고객이 4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이그 그룹의 수익성도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영업이익률은 건설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TF1 및 부이그 텔레콤의 수익성 향상으로 2.9%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룹의 재무구조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순부채는 26억 유로로, 2014년 12월 말 대비 6억 5500만 유로 개선되었습니다.

**알스톰은** 철도교통 부문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하여 진출 시장에서 리더사의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식공개매수 종료시점인 2016년 1월 28일 부이그의 알스톰 지분은 28.3%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지분은 29.2%였습니다. 2014년 6월 22일 체결된, 알스톰의 에너지 부문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따라, 부이그는 프랑스 정부에 알스톰 지분 20%를 약 20개월간 대주해 주었습니다.

**부이그 그룹은 2016년에도 수익성 향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국제부문의 목표 시장에서 발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부문의 수익성도 2016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TF1은 새로운 경영진의 영도로 발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이그 텔레콤은 독자 전략에 따라 매출액과 이익의 영속적인 성장 회복이라는 목표를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애사심, 그리고 고객 및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24일





📍 2015년 부이그 건설은 파리 라데팡스의 프랑스 국방부 건물을 인도하였다.

## 부이그 현황

**세계 100 개국 이상에 진출한 부이그 그룹은 확고한 기업문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에서 발전을 추구할 강력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 전략

12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이그는 다각화된 산업 그룹으로, 건설 인프라에서 디지털 사용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부문(건설, 미디어, 통신)에서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이그는 직원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각 사업 부문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건설 토목, 에너지,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 프랑스 미디어 부문 제1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며, 고객과 최종 사용자들을 위해 통신 부문에서의 디지털 사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 그룹의 장점

#### 안정적인 주주구성

부이그의 최대 주주는 우리사주와, 마르텔 부이그 회장과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의 지주회사인 SCDM이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 부이그의 직원들은 21.4 %의 지분과 28.6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거의 6만 명으로, 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중 우리사주 규모가 가장 크다.
- SCDM은 20.4 %의 지분과 27.9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참여도 높은 주주들이 있기에 부이그는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펼칠 수 있다.

#### 강력한 기업문화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은 부이그 기업 문화의 특징이다. 부이그의 인사관리 방식은 5 대 부문 공통으로 적용되는 존중, 신뢰, 형평의 3 대 원칙에 입각하여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 장기적으로 유망한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 보유

전세계적으로 인프라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며, 지속가능건설(전력 저소비 건물이나 에너지 생산 건물 등) 및 자원 보존에 대한 고객의 요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부이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개발하였으므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제부문(부이그 건설과 콜라스의 2015년 매출액의 52 %)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프랑스 통신 및 미디어 시장 역시 빠른 기술 발전 및 사용 양태의 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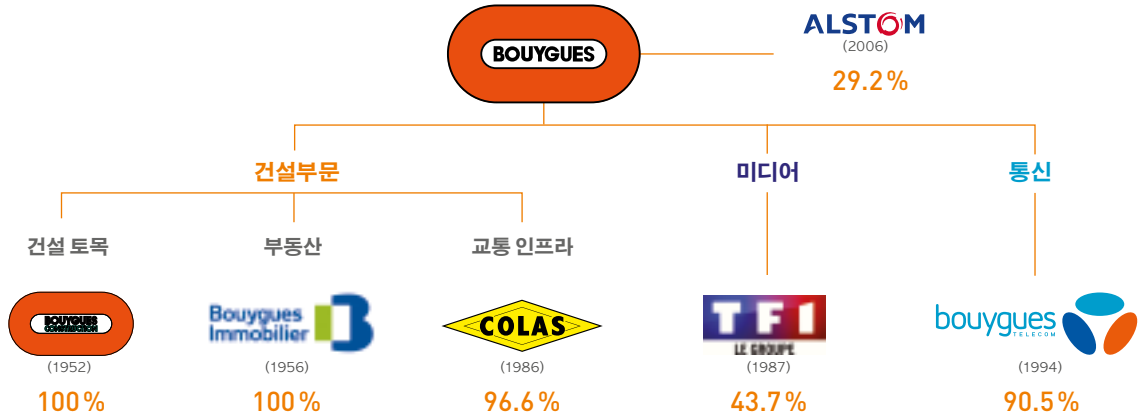
#### 건실한 재무구조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운데 투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부이그 그룹은, 부채율이 매우 낮으며 다량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부이그는 정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며, 2015년 평균 수익률은 4.6 %였다.

# 조직도 및 지배구조

2015년 12월 31일 기준



## 경영진

2015년 12월 31일 기준

### 본사

- Martin Bouygues 회장
- Olivier Bouygues 부회장
- Jean-François Guillemin 총무 이사
- Philippe Marien 그룹 재무 이사
- Jean-Claude Tostivin 인사 및 관리 총괄 부사장

### 5대 사업부문 최고경영자

- Philippe Bonnave 부이그 건설 회장
-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 Nonce Paolini<sup>a</sup> TF1 회장
- Olivier Roussat 부이그 텔레콤 회장

(a) 2016년 2월 19일 Gilles Pélisson 이 Nonce Paolini의 후임으로 TF1 회장직에 취임하였다  
(b) 이사회가 독립이사로 규정한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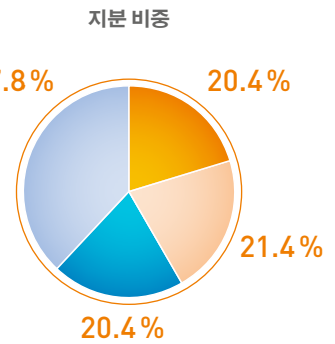
## 이사회

2015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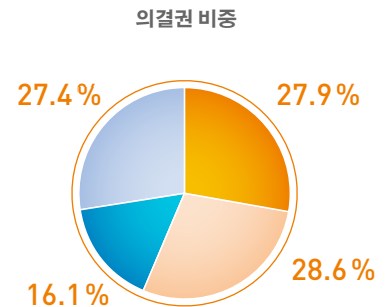
- Martin Bouygues 회장
- Olivier Bouygues 부회장 및 SCDM 상임대표
- Michel Bardou 사원 대표
-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 Jean-Paul Chifflet Amundi Group 이사회 의장
- Raphaëlle Deflesselle 사원 대표
- Anne-Marie Idrac<sup>b</sup> 틀루즈 블라낙 공항 감시위원장
- Patrick Kron 알스톰 회장
-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 Helman le Pas de Sécheval<sup>b</sup> Veolia 총무 이사
- Colette Lewiner<sup>b</sup> Capgemini 회장 자문
- Sandra Nombret 우리사주 대표
- Nonce Paolini TF1 회장
- Jean Peyrelevade<sup>b</sup> Degroof Petercam France 은행 이사회 의장
- François-Henri Pinault<sup>b</sup> Kering 회장
- Rose-Marie Van Lerberghe<sup>b</sup> 파스퇴르 연구소 이사회 의장
- Michèle Vilain 우리사주 대표

## 그룹의 주주 구성

2015년 12월 31일 기준



345,135,316 주



489,224,737 개의 의결권

- SCDM<sup>a</sup>
- 우리사주
- 기타 프랑스 주주
- 외국 주주

(a) SCDM은 마르템 부이그 회장 및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이 지배적 지분을 지닌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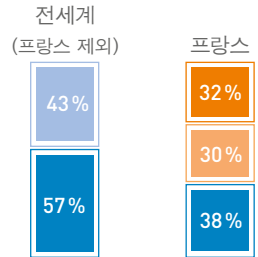


📷 부이그는 사내승진과 사내 업무이동을 장려하고 있다(사진은 방콕의 부이그 타이 직원들).

## 직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 직급



- 관리직 및 기술직
- 현장사원
- 관리직
- 평사원, 기술직, 조장 (중간 관리직)

## 기업, 환경, 사회 부문의 적극적 참여

### 직원 존중 및 자아실현 보장

부이그 그룹의 인사관리는 직원들의 재능 발현과 계발을 장려하는 기업가적, 인간적 비전에 기반하고 있다.

존중, 신뢰, 형평의 가치를 공유하는 직원들에 힘입어 부이그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신뢰와 협동

직원들은 채용 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현장에 가장 가까운 부서에 책임이 주어진다.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나 국제부문에서나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직원들이 최대주주인 부이그는 양질의 노사관계와 협동정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새로운 직무편제, 작업장에서의 삶의 질을 위한 근무환경과 협업 툴(부처간 작업반, 사내 사회관계망 등)을 테스트하기 위한 다수의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

### 사내승진과 총급여

부이그는 애사심과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내승진과 사내 업무 이동을 장려한다. 급여정책은 직원들의 잠재력, 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추가 혜택(추가사회보장, 연금저축, 복지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와 다른 국가에서 부이그는 인센티브형 기업직원저축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부이그 신뢰 7(Bouygues Confiance 7)이라는 이름의 증자 프로그램을 68,000 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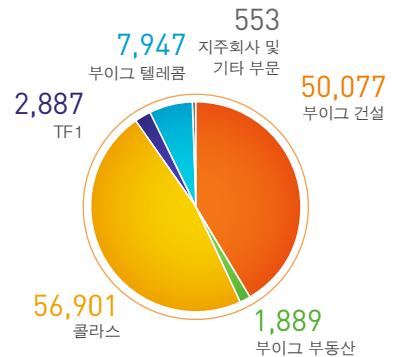
## 그룹 직원수 120,254명

2015년 직원수 (프랑스 67,436 명, 전체 직원의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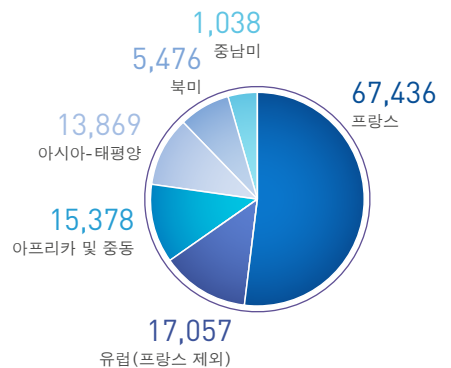
## 채용 30,534명

2015년 전세계 채용 인원 (프랑스에서 3,952 명 채용)

### 부문별 그룹 직원수



### 지역별 그룹 직원수



### 건강 및 안전: 최우선순위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및 인식제고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업무의 육체적 난이도를 하향조정하고 각종 중독 방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분야별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다양성 진흥

부이그 그룹은 다양성을 성과와 창조력의 원천이자 장점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 배경, 양성 고용 비율 균형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 TF1, 부이그 배터리망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규격협회 Afnor의 다양성 라벨을 보유하고 있다.

### 혁신 장려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혁신 관리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개방적 혁신 진흥

2015년 부이그는 각 사업부문에서 창업 프로젝트 선정 및 재원 조달 기구를 설립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 정책에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창업지원기금의 활동은 재무, 법무, 프로젝트 코칭 역할을 갖춘, 부이그 개발이라는 본사 차원의 신규 조직의 지원도 받고 있다.

### 혁신 관리

부이그는 본사에 연구개발혁신팀(e-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p. 19 와트웨이 참조). 부이그 그룹의 직원들은 협력적 프로젝트(해커톤<sup>a</sup>, 디자인 싱킹 세미나 등)를 진행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솔루션 모색에 일조한다. 부이그 그룹은 또한 주요 주제(지속가능건설, 소재공학, 통신 네트워킹 등)에 대한 우수성 클러스터도 운영하고 있다.

(a) 개발자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협력적 IT 프로그래밍 이벤트

부이그 그룹은 양성 고용 비율 균형을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 CSR 실적

## 부이그, 5 개 SRI<sup>a</sup> 지표 채택

2014년 MSCI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 STOXX 글로벌 ESG 리더 지수 및 유로넥스트 비지도 유료존 120 지수를 채택한 데 이어, 부이그는 이제 환경정보공개 지수(Climate Disclosure Leadership Index - CDLI) 및 Low Carbon 100 Europe<sup>(b)</sup>(저탄소 100 유럽) 지수의 구성사가 되었다.

이들 지표 채택을 승인받은 것은 부이그 그룹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활동, 프로세스, 영업 솔루션 면에서 총괄적으로 우수한 CSR<sup>b</sup>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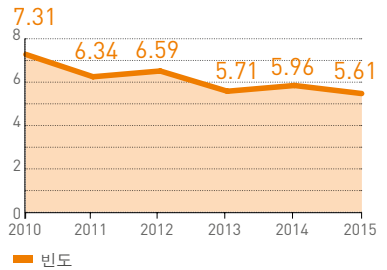
(a) 사회책임투자  
(b)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안전

## 전사적으로 적극적 참여

### 부이그 그룹 직원의 산재사고 빈도<sup>a</sup>

범위: 전세계



안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번째 감소세를 이어 온 부이그의 산재사고 빈도는 2015년에도 하락하였는데, 이는 특히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가 공사현장과 도로 안전면에서 펼치고 있는 강력한 안전 정책의 결실이다.

(a) 업무중단을 동반한 산재사고 수 x 1,000,000 / 근무 시수

### TF1

## 프로그램에 다양성 반영

TF1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및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방송에 반영하는 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에 관여하는 전직원들은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리옹의 에너지 생산 건물 단지 하카리 사업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 기간 중 개최된 기후변화솔루션 시상식에서 <매력 만점 프로젝트(Coup de cœur)> 트로피를 수상하였다.

### 그룹의 환경 성과 제고

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부이그 그룹은 기후변화와 자원의 회소화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에너지 - 기후부문의 성과

부이그는 리모델링, 에너지 생산 건물 건설, 친환경지구, 도시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솔루션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자사가 사용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건물에 최고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는 에너지 소비 감소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콜라스는 회사 트럭과 현장 차량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툴을 전개하고 있다.

#### 순환경제 진흥

부이그의 건설부문 기업들은 소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프로젝트를 친환경적으로 고안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종국적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인프라 전문 자회사들은 파리 광역시 개발사업(Grand Paris) 진행 중 파넬 흙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콜라스는 재활용을 통해 특히 골재 채취를 감소시킴으로써, 신규 채석장과 골재 채취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중고 스마트폰 재생 전문사(리커머스 솔루션즈) 창립을 장려한 최초의 통신사업자이다.

### 부이그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

범위: 전세계

**15,769**

킬로톤 등가치의 탄산가스를  
2015년 배출  
(2014년에는 16,845 킬로톤 등가치)



프랑스 국제 자원 기후 솔루션 전시회 (World Efficiency)에 출전한 부이그 (2015년 10월 13일-15일).

#### COP21

### 부이그 그룹의 적극적 참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를 맞아 부이그는 리모델링, 지속가능건설, 친환경지구, 친환경적 교통수단 및 도시 서비스 분야에서 70 개 이상의 저탄소 모범사례 및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다.

세계 최초의 태양광 발전 도로인 와트웨이(콜라스)와 프랑스 리옹의 첫 에너지 생산 주상 복합 건물 단지인 하카리(부이그 부동산) 등 부이그 그룹의 프로젝트 두 개가 COP21 기간 중 개최된 솔루션 갤러리에서 기후해결트로피<sup>®</sup>인 <대기업 매력만점 프로젝트(Coup de cœur Grand Groupe)> 트로피를 수상하였다.

(a) 프랑스의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의 지원으로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공단(Ademe), 지속가능발전 담당 임원 위원회 (C3D), 신용협동조합(Crédit Coopératif), 오레(Orée), 솔루션즈 COP21, 더 쉬프트 프로젝트, 프랑스 국제 자원 기후 솔루션 전시회 참가 수여



## 그룹의 이해당사자들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 유지

부이그 그룹의 사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계하는데, 부이그는 이들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윤리 원칙 준수

부이그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2015년 직원들이 널리 참여한 4대 준수 프로그램(경쟁법, 부패방지, 재무 정보 및 증권 거래, 이해상충)이 부이그 윤리강령을 보완하는 동시에 좋은 실례가 되고 있다. 본 주제에 대한 교육이 그룹 내에서 진행되었다. 부이그 이사회의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후원 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행동 강령과 사업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지침을 제시하고, 이렇게 규정된 가치와 규정들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 책임구매

부이그는 납품업체, 하도급업체, 용역업체를 아우르는 책임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연결 참조).

### 연대정신에 입각한 참여

부이그 그룹내에서는 다각도로 후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후원 활동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시민활동 이니셔티브로도 표출된다.

교육 분야에 있어 프랑스 부이그 재단은 매년 약 6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2005년 창립된 이래 학업에의 열정이 있는 660 명의 학생들(그 중 222 명은 이미 졸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룹 직원이나 과거 장학생이었던 선배가 후원자로서 이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 책임구매

## 그룹 파트너 헌장

부이그는 2015년 부이그 그룹 기업의 사회적 책임 헌장을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사회적 위험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동시에, 협력업체들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와 대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 헌장은 부이그 그룹이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구매계약서에 부속서로 첨부된다.



상세 정보:

> [www.bouygues.com](http://www.bouygues.com)

> Twitter: @GroupeBouygues

프랑스 부이그 재단은 매년 파리에서 재학중인 장학생과 졸업한 선배 장학생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 2015년 부이그 그룹의 주요 사항

**부이그, 새로운 SRI<sup>a</sup> 국제지표 2개 도입.** 기존의 MSCI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 STOXX 글로벌 ESG 리더지수 및 유로넥스트 비지오 유로존 120 지수에 이어 2015년에는 프랑스 - 베네룩스 환경정보공개 지수(Climature Disclosure Leadership Index - CDLI) 및 Low Carbon 100 Europe<sup>®</sup>(저탄소 100 유럽 - 유로넥스트) 지수를 도입하였다.

**60년전부터 홍콩에서 활약중인 부이그 건설.** 교통에서 레저, 상업 인프라에서 대학, 럭셔리 호텔에서 저소득층용 주택에 이르기까지, 부이그 건설은 60년 전부터 홍콩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

**세계 최초의 태양광 발전 도로 발명.** Ines<sup>b</sup>와 협력하여 콜라스가 개발한 태양광 발전 도로 와트웨이는 태양 에너지를 포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p. 19 참조).

도로 인프라에 태양광 발전 포석을 장착하여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공공 조명, 트램웨이, 주택, 사무실 등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고객 110만 명** 이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의 유무선 통신 요금제를 선택하였다.

2015년 TF1은 프랑스 100대 최고 시청률중 98 건을 기록하였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럭비 월드컵 8강전(1220만 명이 뉴질랜드-프랑스전을 시청)과 레 장포아레 공연(1140만 명)이었다. 미디어메트리가 집계한 이 연간 시청률 순위에서 프랑스 픽션은 최고 시청률 100 건 중 32 건을 점했다(p. 24-29 참조).

(a)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b) 국립태양에너지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Énergie Solaire)  
 (c) 미디어메트리



**1.** 2016년 아시아의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잇게 될 해상 교량 건설현장의 모습(부이그 건설). **2.** COP21 기간 중 부르제에서 선보인 콜라스의 태양광 발전 포석 와트웨이는 전세계 도로에 사용가능하다. **3.** 2015년 이씨-레-몰리노(오-드-세네 지방)에서 개장된 넥스트도어 네트워크(부이그 부동산)는 기업들에게 유연하고 쾌적한 협업 근무 공간을 제공한다. **4.** TF1의 오후 1시 및 저녁 8시 뉴스는 2015년 100대 시청률 중 55 회 집계되었다(미디어메트리). **5.** 부이그 텔레콤 FTTH(Fiber To The Home - 집안까지 광케이블이) 요금제의 상업 출시.

# 부이그 그룹의 간략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

201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자산	2014	2015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8,267	8,654
영업권 <sup>a</sup>	5,286	5,261
고정 금융자산 <sup>b</sup>	4,663	3,943
기타 고정 금융자산	288	352
<b>고정자산</b>	<b>18,504</b>	<b>18,210</b>
유동자산	12,199	11,784
현금 및 현금 등가물	4,144	3,785
금융상품 <sup>c</sup>	21	21
<b>유동자산</b>	<b>16,364</b>	<b>15,590</b>
매각 예정 자산 및 사업 <sup>d</sup>		35
<b>자산 총계</b>	<b>34,868</b>	<b>33,835</b>

자기 자본 및 부채	2014	2015
자기 자본(그룹 지분)	7,854	7,865
지배권 무보유 지분	1,601	1,428
<b>자기자본</b>	<b>9,455</b>	<b>9,293</b>
장기부채	5,850	5,305
장기 미지급 비용	2,305	2,160
기타 고정 금융부채	153	97
<b>고정부채</b>	<b>8,308</b>	<b>7,562</b>
유동 금융부채	1,267	831
유동부채	15,574	15,918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잔고	234	196
금융상품 <sup>c</sup>	30	35
<b>유동부채</b>	<b>17,105</b>	<b>16,980</b>
매각 예정 사업 관련 부채		
<b>자기 자본 및 부채 총계</b>	<b>34,868</b>	<b>33,835</b>
순금융부채	3,216	2,561

- (a) 그룹 통합 기업의 영업권
- (b) 지분법 평가 포함(귀속 영업권 포함)
- (c) 금융부채의 정확한 가치 환산
- (d) A28 고속도로 양허기업 지분 매각 관련
- (e)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지분(31%) 매도차익 3억 1300만 유로 및 잔여 지분(49%) 재평가분 포함
- (f) 콜라스의 코퍼루트 지분 순매도차익 2억 5300만 유로 포함
- (g) 매도차익 및 비경상요소 채처리
- (h) 코퍼루트(콜라스) 매각 수익 7억 7000만 유로,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지분(31%) 매각 수익 2억 5900만 유로 포함
- (i) 부이그 텔레콤의 700 MHz 인수 비용 4억 6700만 유로 포함
- (j)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매각 수익 4억 9000만 유로 포함

##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유로

	2014	2015
<b>매출액</b>	<b>33,138</b>	<b>32,428</b>
<b>경상영업이익</b>	<b>888</b>	<b>941</b>
기타 영업이익 및 비용	245 <sup>e</sup>	[273]
<b>영업이익</b>	<b>1,133</b>	<b>668</b>
순금융비용	[311]	[275]
기타 금융이익 및 비용	10	6
법인세 비용	[188]	[118]
공동기업 및 합작기업 참여지분 손익배당	420 <sup>f</sup>	199
<b>사업 부문 순이익</b>	<b>1,064</b>	<b>480</b>
지배권 무보유 지분 순이익	[257]	[77]
<b>연결 순이익(그룹 지분)</b>	<b>807</b>	<b>403</b>
<b>예외적 요소를 제외한 연결 순이익(그룹 지분)<sup>g</sup></b>	<b>492</b>	<b>489</b>

##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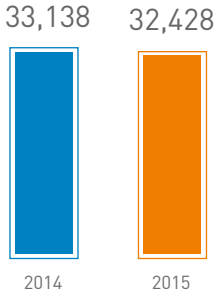
	2014	2015
<b>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58	2,067
단기 지급 세금	[319]	[194]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전자금 소모 변동	8	203
<b>A- 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b>1,947</b>	<b>2,076</b>
<b>투자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순영업투자	[1,362]	[1,890] <sup>i</sup>
기타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1,047 <sup>h</sup>	1,194 <sup>j</sup>
<b>B-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b>	<b>[315]</b>	<b>[696]</b>
<b>재무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연내 지불 배당금	[198]	[737]
기타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	[818]	[1,106]
<b>C- 재무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b>[1,016]</b>	<b>[1,843]</b>
<b>D- 환율 변동 사항</b>	<b>110</b>	<b>143</b>
<b>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A + B + C + D) + 비통화 현금흐름</b>	<b>726</b>	<b>[321]</b>
<b>기초의 순현금</b>	<b>3,184</b>	<b>3,910</b>
<b>기말의 순현금</b>	<b>3,910</b>	<b>3,589</b>

# 2015년 부이그 그룹 주요 지표

알스튠은 지분법 평가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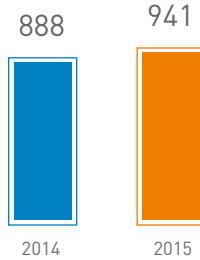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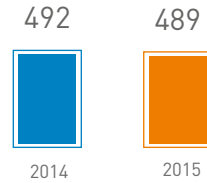


(a) 매도차익 및 비경상요소 재처리

##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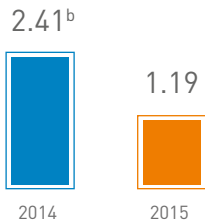


## 예외적 요소를 제외한 그룹 지분 순이익<sup>a</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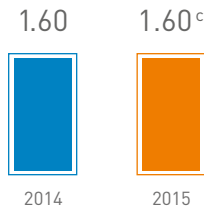
## 주당 순이익<sup>a</sup>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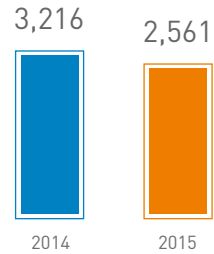


## 주당 배당금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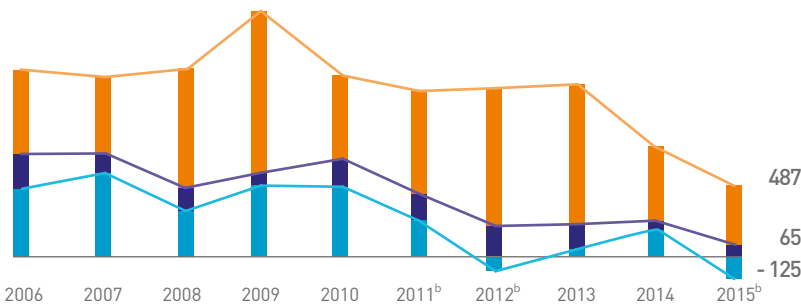
## 순부채



(a) 사업 부문의 그룹 지분 (b) 콜라스의 코퍼리트 지분 순매도차익 2억 4000만 유로,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지분(31%) 순매도차익 1억 1600만 유로 및 잔여 지분(49%) 재평가분 포함 (c) 2016년 4월 21일 주주총회 상정 배당금, 2016년 4월 28일 배당금 지급.

## 사업부문별 잉여현금흐름 변동<sup>a</sup>

(단위: 백만 유로)



● 건축부문 ● TF1 ● 부이그 텔레콤

(a) 잉여현금흐름 =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순금융비용 - 세금 - 순영업투자. 잉여현금흐름은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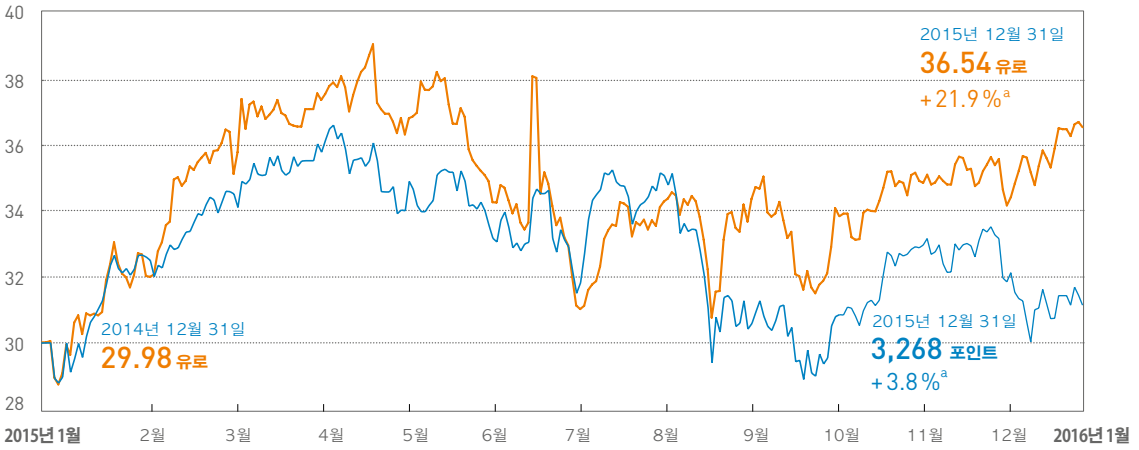
(b) 주파수 구매 비용 제외

다각화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이그 그룹은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2006년 ~ 2013년 기간에 연간 약 9억 유로 수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잉여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14년 및 2015년은 그룹의 잉여현금흐름 창출 사이클의 최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 2014년 말 이후 주가 추이

장 마감 후 주가(단위: 유로)

● 부이그 ● DJ Euro Stoxx 50®



(a) 2014년 12월 31일 대비



📍 파리에서 건설중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법원 건물

##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한 제안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및 콜라스가 건설부문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이그는 동부문 세계 선두주자 중 하나이다. 미래를 위한 부이그의 강점으로는 인적자본, 고부가가치의 상품 및 서비스, 강력한 국제 진출,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

### 2015년 주요 통합 지표

직원 수

**108,867명**

매출액

**260억 유로** (-2%)

경상영업이익

**8.31억 유로** (-1%)



2016년 부이그 건설은 독일 건축가 올레 쉬렌이 설계한 태국 최고층 건물(314 미터)인 방콕 마하나콘 빌딩을 인도할 것이다.

**부이그는 도시화, 편리한 교통, 환경이라는 거대 명제에 부응하여 건설 토목, 부동산 개발, 교통 인프라, 에너지와 서비스, 양허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 전략

건설부문이 전세계 100 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부이그는 인프라 수요의 증가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한 동부권 세계 리더사 중 하나이다. 부이그 그룹은 고객을 위한 혁신과 지속가능건설에 기반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강점

###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부이그 그룹이 보유한 진정한 장점이다. 부이그 그룹은 의욕적인 직원들의 노하우와 경험에 힘입어 민간 부문 고객들의 소요에 보다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고부가가치 솔루션 제안

- 프로젝트의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솔루션 제안: 자원조달, 설계, 시공, 사후관리 및 운용.
- 복잡한 프로젝트(터널, 교량, 고층 건물) 수행에 대한 고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한 부이그의 전문성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프랑스 북부 지방 A22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콜라스 노르-피카르디 직원 모하메드 부덴다니



-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경쟁우위. 특히 구조물의 탄소 발자국 감소 및 최종사용자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 여러 사업부문의 상호보완성. 부이그 그룹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네트워크, 설비 사후관리\*, 철도 등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 혁신을 통해 차별성 부각

부이그는 적극적인 연구 및 혁신 정책을 통해 고객과 최종사용자들의 새로운 사용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국제적인 그룹

프랑스 전역에 촘촘히 진출하여 있는 부이그는 또한 전세계 5 대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이그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현지 자회사의 사업 역량과 특정 대형 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팀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다.

### 강력한 적응력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우수한 노하우에 힘입어, 고객의 수요와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 견조한 재무구조

부이그의 건설부문은 사업실행상의 위험과 재무분야의 위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견조한 재무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a) 기업의 일반 운영 서비스 관리



### 부이그 건설

건설 및 서비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발휘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



### 부이그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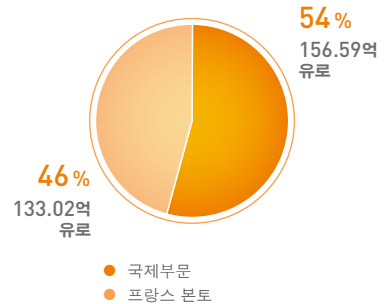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 콜라스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 지역별 수주잔액







2015년 인도된 홀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파리에 건설된 고층 주택건물이다

## 2015년 주요사항

### 주요 계약 체결

- 노스코넥스 고속도로 연결(호주).
- 카타르의 하수 터널.
- 런던의 양자선치료센터(영국).
- 리미비바 병원(스위스).
-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도로 보수 계약(미국).
- 4 지구 및 12 지구의 다개년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영국).
- 웨식스 철도 개선 사업(영국).
- 카이로 지하철 연장 구간(이집트).

### 상업 출시

- 태양광 발전 도로 포장재 와트웨이.
- 기업을 위한 공동사용 협업 근무공간 넥스트도어.

### 시공중인 사업

- 남-몽펠리에 간 우회선로.
- 파리 법원.
- 레유니옹의 제방도로 및 입체교차로(신해안도로).
- 마르세이유의 L2 우회도로.
- 홍콩의 투엔문 - 첩랍콕 터널.
- 홍콩 - 주하이 - 마카오 간 교량.
- 마이애미의 브리켈 시티 센터 부동산 단지.
- 알버타주의 63번 고속도로 구간(캐나다).
- 케랄라 자야의 경전철 (말레이시아).
- 칠레 산티아고의 지하철 3, 6호선.

### 인도 완료 사업

- 파리의 프랑스 국방부 건물.
- 파리 필하모니 공연장.
- 토론토의 스포츠 시설(캐나다).
- 글랑의 에이켄노트 친환경지구(스위스).
- 리옹에 있는 프랑스 최초의 에너지 생산 건물 단지 히카리.
- 루에이의 Green Office® (오드-세네 지방).

### 주요 매각 및 인수

- 가스티에 지배지분 인수(전기 및 기계 공학, 캐나다).
- ALIS 금융 지분 매각(세네-사르트 연결 고속도로).

## 2015년 사업현황

2015년 부이그 그룹의 건설부문은 다시 한번 국제부문에서의 역동성, 경쟁력,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체질을 강화하고 프랑스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었다.

### 건조한 영업활동

2015년 말 건설부문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90억 유로의 높은 수주잔액을 기록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발주의 저조가 영업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며, 수주잔액은 2010/2011년 기간에 착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과 건물 건설 사업들이 완공된 것을 반영한다. 반면 국제부문은 강한 역동성을 유지하였는데, 특히 유럽, 아시아, 북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 수주잔액의 59%는 국제부문의 수주로, 전년의 비중은 53%였다.

부이그 건설의 수주량은 120억 유로로, 2014년 대비 3% 증가하였다. 2015년 수주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호주의 노스 커넥스 터널, 카타르의 하수 터널, 영국의 종양 치료 및 수술 센터 등을 들 수 있다. 2015년 12월 말 총수주잔액은 7% 상승한 193억 유로로, 향후 사업에 대한 양호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

피넬 법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민간 투자자들이 프랑스 주택 시장으로 복귀했으며, 그 결과 부이그 부동산의 주택 예약매물은 물량 기준 16% 증가하여 총 20억 유로에 달했다. 기업부동산 예약매물은 4억 8700만 유로로, 녹색 부동산과 턴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전략의 성공을 반영하고 있다. 총수주잔액은 또 다시 성장세를 보이며 2015년 12월 말 기준 2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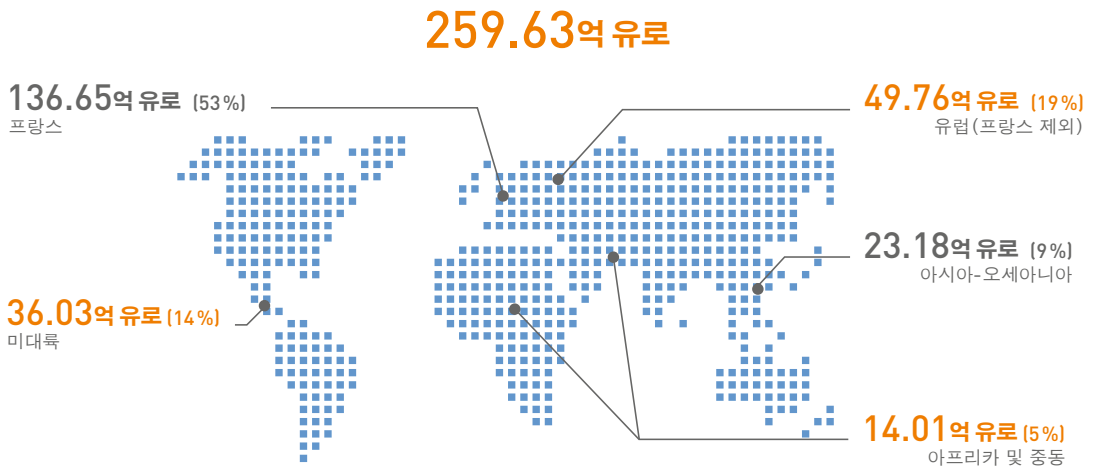
2014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도로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이 하락함에 따라 지자체 투자가 급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럽과 북미 등 국제부문 사업의 약진과 철도 부문 콜라스 레일의 급성장이 프랑스 본토 도로 사업의 하강세를 많은 부분 상쇄하였다. 그 결과 콜라스의 수주잔액은 전년 대비 소폭(2%) 감소한 7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 아시아의 투엔문 - 책람콕 터널 공사현장의 부이그 그룹 직원들.



## 건설부문 지역별 매출액





2016년 1월 인도된 비시 남서우회로(PPP)에는 18.6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 구간이 포함된다.

### 기대에 부응하는 재무실적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2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2%, 동일 범위와 환율 적용시 6% 하락하였다. 예상한 대로, 프랑스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수주한 다수 사업의 진행이 더딘 점이 매출액에 반영되었다.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설부문의 경상영업이익률은 3.2%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경상영업이익은 8억 31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부이그 건설의 수익성은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부이그 부동산의 수익성은 매출액 동향을 반영하여 하락하였으나, 콜라스의 경상영업이익률은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국제부문에서 도로 사업의 약진이 프랑스 도로 시장의 침체와 덩케르크의 정유공장(SRD) 폐쇄를 상쇄하였다.

모든 사업부문에서 필요한 시장 적응 계획을 실시한 결과 2015년 비경상 비용은 1억 3400만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특히 덩케르크의 정유공장(SRD) 폐쇄 관련 비용이다.

건설부문은 또 다시 뛰어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2015년 말 건설부문의 순현금은 38억 유로에 달했다.



📍 Rehagreen® 리모델링 방식(부이그 부동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업인 장티이의 사노피 발 드 비에브르 캠퍼스

## 쾌적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부이그 그룹의 솔루션

2015년 부이그는 인프라와 도시 부문의 혁신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부이그 그룹은 기후,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등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부이그는 자회사들의 협업적 접근방식을 해당 부문별로 특화된 파트너십으로 보강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 리모델링

열효율 리모델링은 강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설정한 에너지 절감 목표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거의 1억 9000만 채<sup>a</sup>의 주택의 열효율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부이그 그룹은 건물 리모델링 노하우(부이그 건설의 Réavenir 서비스, 부이그 부동산의 Rehagreen®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건물의 건축학적 특징을 존중하면서 공사 중에도 주민들이 계속 생활하는 가운데, “수동형<sup>b</sup> 에너지 소비 건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저탄소 건설

부이그는 재생 에너지 생산과 저장, 자원화와 재활용이 가능하며 환경 발자국이 낮은 소재 사용, 최적의 에너지 운동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등을 통합한 시스템 등, 일련의 저탄소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건물 부문의 선구자 부이그 부동산은 2015년 루에이-말메중에 Green Office®를 인도하였다. 이 대형 프로젝트는 계약서로 보장되는 에너지 고효율 기능과 쾌적한 입주 환경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친환경지구

부이그와 파트너사들은 지속가능건설, 에너지 효율, 주상복합 지구 조성,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생물 다양성,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신기술 등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동부부 부이그 그룹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스위스의 에이켄노트와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브리켈 시티 센터 등을 들 수 있다.



통합 솔루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이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동영상)

(a) 출처: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공단(Ademe)  
(b)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은

### 부이그 건설

## 미래 도시를 상징하는 친환경지구 그린시티

취리히의 그린시티는 2100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 2000 와트를 목표로 하는, 스위스 최초의 “2000 와트 사업”<sup>a</sup>이 될 것이다. 에너지 소요는 구매 또는 현지에서 생산한 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된다.

그린시티 설계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연령대의 주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및 여가와 가족 전용 시설을 준비하는 등, 입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a) 연방에너지청(OFEN) 인증

### 부이그부동산

## 대안적 근무환경을 위한 넥스트도어 출시

넥스트도어는 보다 민첩한 근무방식 변화를 위한 상품이다. 기업들에게 장기 계약에 묶이지 않는 유연한 공동사용 근무공간을 제공하는 컨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넥스트도어는 협업 및 회사간 교류를 통한 창조적 작업, 쾌적한 공동 환경 제공을 위해 탄생하였으며, 최대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근무공간이다.

2015년 최초의 넥스트도어가 이씨-레-물리노(오-드-세즈 지방)에서 문을 열었다. 2020년까지 약 15 개소의 넥스트도어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 도시를 위한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태양 에너지 도로 와트웨이를 발명한 부이그 그룹은 도로가 포착한 태양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대중교통수단, 사무실, 주택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Citybox® 서비스는 공공조명 시설의 효율과 기능성을 제고하며, Alizé®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최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부이그는 부이그 토목과 콜라스 레일을 통하여 대중교통 인프라(트램웨이 등) 건설 및 리모델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원들의 통근시간을 경감시키고 도로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유연한 공동사용 근무공간(넥스트도어)을 설립하였다.

## 도시 안의 자연

부이그 건설과 부이그 부동산은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부여하는 최초의 국제 라벨 BiodiverCity®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친환경지구(크레테이의 네오-C, 툴롱의 풍-프레, 생-강탕-앙-이블린의 쉐린저, 불로뉴-비양쿠르(오드-세느 지방)의 음악의 전당)를 비롯하여 부이그 그룹이 진행하는 다수의 사업이 BiodiverCity 인증을 받았다.

2015년 부이그 건설은 프랑스의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가 프랑스생물다양성 전략(SNB) 차원에서 수여하는 <SNB 인정 사업> 라벨 인증을 받았다.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는 파리의 조명, 조명 신호, 루미나리에 등을 운용, 관리한다.



BiodiverCity 인증을 받은 도립 음악의 전당 공사현장

## 구조물 사후관리

한 건물의 성과는 수명기간 전체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이그 에너지 & 서비스는 건물 관리 감독 통과, 적절한 건물 운용 경비 유지를 보장하는 가운데 구조물의 사후관리 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 생물다양성 및 부동산 국제위원회(CIPI)에서 수여. 창립자: 불로레 로지스틱스, 프랑스 국립예탁원(Caisse des Dépôts), 제시나, 갈리 공원, 조류보호동맹, 부이그 건설, 열랑. 부동산 사업의 기준 부합 평가는 독립적인 제3기관이 수행한다.

## 콜라스

### 콜라스, 태양 에너지 도로 와트웨이를 발명하다

세계 최초의 태양광 발전 도로 포장재인 와트웨이는 콜라스와 Ines가 5 년여간 연구하여 특허를 획득한, 프랑스 혁신의 산물이다.

도로 건설 기술과 태양 에너지 생산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차량 통행을 유지하는 가운데 와트웨이를 통해 기존 도로 인프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10월 소개된 이 혁신적 제품은 프랑스와 전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a) 국립태양에너지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Énergie Solaire)



와트웨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하려면 이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상세정보:

> [www.bouygues.com](http://www.bouygues.com)

> Twitter: @GroupeBouygues





1



4



2



3



5

## 2015년 집중 조명

**1. 캐나다.** 콜라스 캐나다의 5 개 자회사가 알버트주 하이웨이 63 고속도로의 159 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의 건설, 확장(양방향 2차선 도로), 도로 보수에 참여하였다. 캐나다에서 콜라스의 대표적인 사업인 이 공사에서 710만 m<sup>3</sup>에 달하는 지반을 조성하였으며 789,000 톤의 코팅재가 투입되었다.

**2. 에너지 절감.** 부이그 부동산은 에너지 생산 건물인 Green Office® 프로젝트를 약 15 건 정도 개발하고 있다. 보르도에서는 2015년 5월 아키텐 포아투-샤랑트 지방 저축은행의 분사 건물을 착공하였는데, 2016년 인도 예정이다.

**3. 토목.** 님-몽펠리에 간 우회선로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부이그 건설 - 콜라스 - 알스툼), 앞으로 완공될 철도 노선 80 킬로미터 구간에 188 개 구조물을 완공하였다.

**4. 레유니옹.** 콜라스는 신해안도로의 제방도로 및 입체교차로 건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5. 미국.** 마이애미에서 부이그 건설은 아키텍토니카 및 휴 더튼 파트너즈가 설계하였으며 LEED 지역사회 개발(Neighborhood Development) 인증을 받은 브리켈 시티 센터 친환경지구를 건설하고 있다.



##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건설 및 서비스 업체 부이그 건설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한 부이그 건설은 고객들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일구는 데 일조하고 있다.

### 민간 및 공공 건물

주택, 학교 및 대학, 병원, 호텔, 사무실 건물, 경기장, 공항, 교도기관 등.

### 토목

교량 및 터널,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및 항만 인프라, 트램웨이, 지하철 등.

### 에너지 및 서비스

에너지망 인프라,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공공 조명, 디지털 네트워크, 전기 엔지니어링, 기계 엔지니어링, 열 엔지니어링, 설비 사후관리 등.

### 양허 사업

교통 인프라, 스포츠 및 오락 시설, 항만 지역 등의 관리 및 운용.

## 총직원수

2015년 12월 31일 기준

# 50,077명



상세 정보:

> [www.bouygues-construction.com](http://www.bouygues-construction.com)  
> Twitter: @Bouygues\_C

## 매출액

단위: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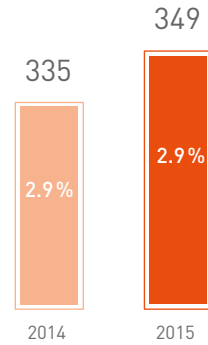


● 국제부문  
● 프랑스

##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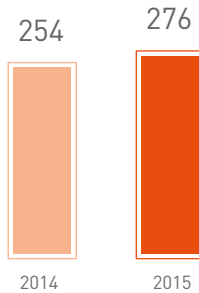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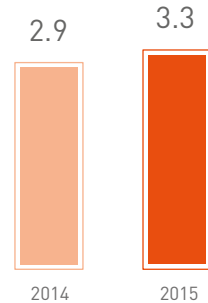
##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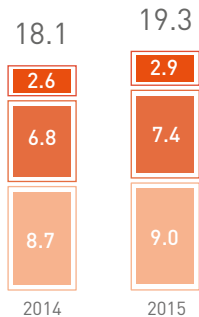
## 순현금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 수주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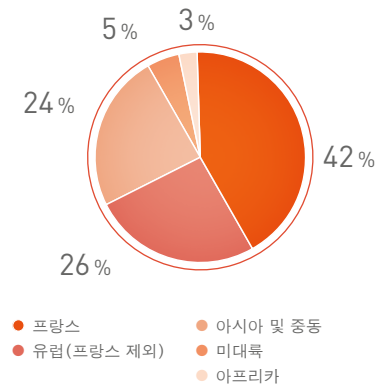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 5년 이상 비중  
● 2~5년 비중  
● 1년 이하 비중

## 지역별 수주잔액

12월 말 기준



##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부이그 부동산

도시 개발-운용 사업자 부이그 부동산은 주택, 사무실 건물, 상가, 지속가능지구 조성 등을 수행한다. 프랑스에 35 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벨기에, 폴란드, 모로코를 기반으로 국제부문을 개발하고 있다.

### 주택

고객의 니즈와 사용 양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와 개인화의 용이성을 높인 주택 상품.

### 기업 부동산

“턴키” 방식의 건물, 녹색 리모델링 (Rehagreen®), 에너지 생산 건물 (Green Office®), 새로운 협업 공간 (넥스트도어).

### 지구 조성

사회적 연계, 지역 생태계 통합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상복합(주택, 사무실, 상가) 지속가능 (UrbanEra® 방식) 지구 개발.

## 총직원수

2015년 12월 31일 기준

**1,889명**



상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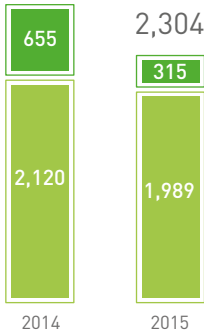
> [www.bouygues-immobilier.com](http://www.bouygues-immobilier.com)

> Twitter: @Bouygues\_Immo

##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2,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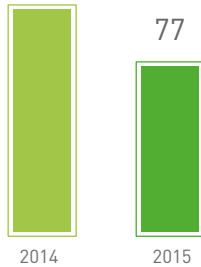


- 기업 부동산(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주택

##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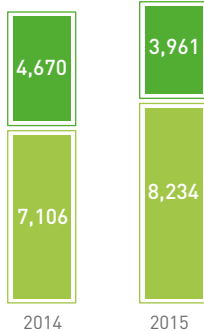
102



## 주택

단위: 예약매물

11,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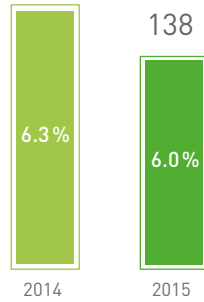
- 복수 예약
- 개별 단위 예약

##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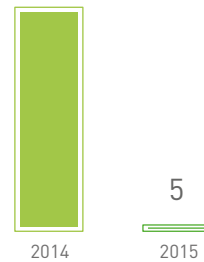
174



## 순현금

단위: 백만 유로, 12월 말 기준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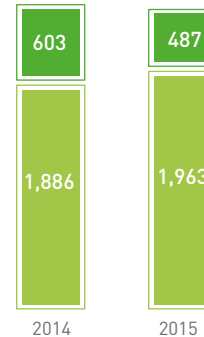


## 예약매물

단위: 백만 유로

2,489

2,450



- 기업 부동산(사무실 및 상업용 부동산)
- 주택





##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콜라스

콜라스는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사후 관리 부문의 리더사이다. 전세계 5 대륙 50 개국 이상에 진출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콜라스는 교통, 도시화, 환경 분야의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8만 건의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다. 콜라스는 또한 대부분의 자사 사업 부문 관련 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다.

### 도로

도로, 고속도로, 공항 활주로, 항만 및 물류 플랫폼 건설 및 관리, 도시계획, 레저 설비 조성, 대중교통 전용 노선(트램웨이, 버스), 토목 구조물, 건물; 건축자재(골재, 유제/접합제, 코팅재, 레미콘, 역청) 생산, 재활용 및 판매.

### 전문분야

철도(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레일 갱환, 사후관리), 방수, 도로 신호 안전, 파이프 라인, 정유 기반 제품 판매.

### 총직원수

2015년 12월 31일 기준

# 56,9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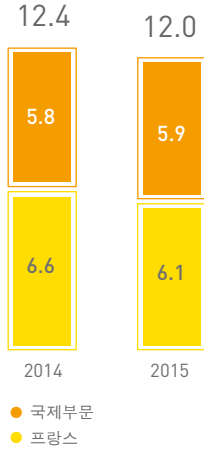
상세 정보:

> [www.colas.com](http://www.colas.com)

> Twitter: @GroupeColas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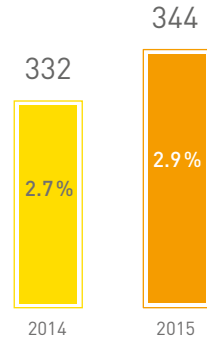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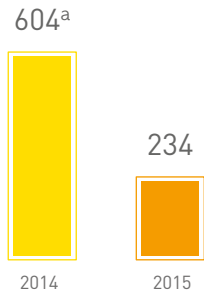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 그룹 지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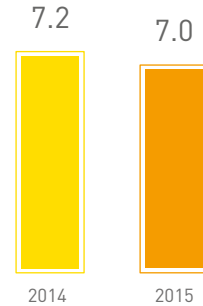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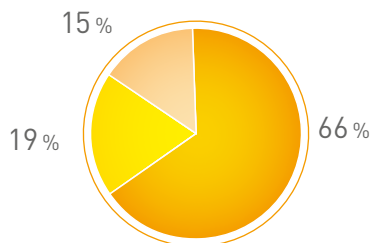
(a) 콜라스의 코피루트 지분 매각으로 인한 3억 8500만 유로의 순매도차익 포함

### 수주잔액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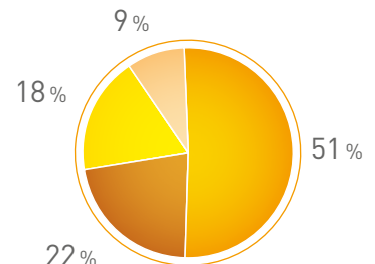


### 사업부문별 매출액



- 도로 건설
- 전문 분야 사업
- 건설 자재 판매

### 지역별 매출액



- 프랑스
- 북미
- 유럽(프랑스 제외)
- 기타 지역

##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그룹 TF1

TF1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다. 그룹의 핵심사업은 모든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의 제작, 방송, 유통이며,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5년 주요 지표

총직원수

**2,887명**

매출액

**20.04억 유로** (- 11%)

경상영업이익

**1.58억 유로** (+ 10%)





2015년 텔레비전 100대 최고 시청률 중 98 건을 기록한 TF1 방송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시청자를 모을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사진은 드라마 <클렘>).





☐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의 결정에 따라, LCI는 2016년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다.



## 2015년 TF1 그룹은 전매체상에서 공중파 4개 채널<sup>a</sup>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였으며, LCI<sup>b</sup>의 공중파 방송 허가를 획득하였고 뉴웬(Newen)의 지분 70% 인수를 발표하였다.

상호보완적인공중파 방송 4개 채널<sup>a</sup>을 보유한 TF1은 모든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 방송, 유통하고 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TF1은 상호보완적인 부문(홍소핑, 라이센스, 음악 프로듀싱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 전략

TF1 그룹의 사명은 정보와 오락의 제공이며, 다음과 같은 2대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모든 플랫폼과 시청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채널과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힘입어 리더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할 것.

- 특히 다음 2개 부분에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여 발전을 도모할 것:

▶ **콘텐츠 제작 및 유통.** 2015년 TF1 그룹은 특히 그룹 소속 채널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주요 시청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인 뉴웬의 지분 70% 인수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 TF1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모바일 기기를 통한 콘텐츠 소비, VOD, 재방 텔레비전)에 부응하는 동시에 그 결과 발생하는 새로운 광고 판매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외에도 TF1 그룹은 자원 최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강점

- 4개 공중파 채널과 프랑스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브랜드인 TF1에 힘입어 프랑스 시청각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누리고 있다.
- 텔레비전과 디지털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자사 채널에 광고되는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 광고주들에게 독보적인 노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플랫폼 상에서 광고주들이 시청자 및 누리꾼들에게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각 프로그램 장르(픽션, 스포츠, 오락 등) 별로 필요한 노하우를 발휘하여 프랑스와 국제 시장에서 콘텐츠의 고안, 제작 및 유통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 뛰어난 적응력과 혁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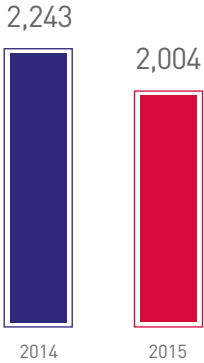
- 특히 유럽미디어동맹(European Media Alliance)<sup>c</sup>의 가치하에 모인 유럽 주요 방송사들을 포함한, 유망 파트너쉽.

- 견조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TF1 그룹은 야심찬 성장 계획 및 수익성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재원을 갖추고 있다.

(a) TF1, TMC, NT1, HD1  
 (b) 2015년 12월 17일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의 결정에 따라 2016년에는 뉴스 채널 LCI도 TF1처럼 공중파 방송을 개시할 것이다.  
 (c) ProSiebenSat.1의 주도로 결성된 유럽 선두 방송사들로 구성된 미디어 네트워크. 지리적인 영역을 넓히고 디지털 부분의 투자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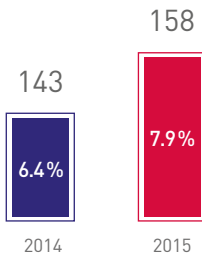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 경상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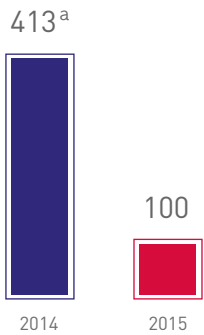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 그룹 지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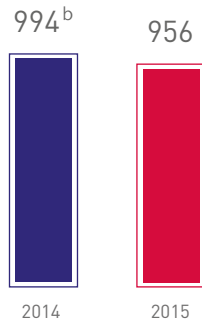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a)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지분(31%)의 순매도차익 3억 2800만 유로와 잔여 지분(49%) 재평가분 포함

## 4개 공중파 채널<sup>a</sup>의 프로그램 편성 비용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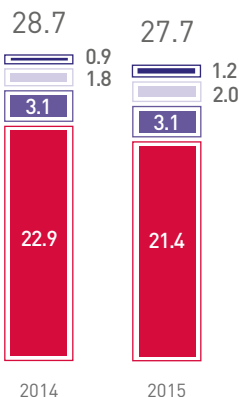


(a) TF1, TMC, NT1, HD1  
(b) 2014년 피파 월드컵 브라질™ 방영 관련 비용 7400만 유로 포함

## TF1 그룹의 시청률 점유율<sup>a</sup>

단위: %

4 세 이상 개인



● TF1 ● TMC ● NT1 ● HD1

(a) 출처: 미디어메트리 집계 연평균

## 2015년 주요 사항

TF1, 텔레비전 100대 최고 시청률\* 중 98 건 기록. 럭비 월드컵 방영(시청자 수 최대 1200만 명\*).

뉴엔 지배 지분 인수 발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에 유로스포르츠 그룹 지분(49%) 매각.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LCI의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 허가.

MYTF1이 TF1 그룹 공중파 채널<sup>b</sup>의 디지털 서비스를 모두 제공.

(a) 출처: 미디어메트리  
(b) TF1, TMC, NT1, HD

## 시청자와의 대화

다양한 SNS 상의 팬과 팔로어 수



시청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조회 및 구독함으로써 점점 더 프로그램 및 진행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TF1의 2015년 NRJ 음악대상 생방송은 590만 명의 시청자들이 팔로잉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 트위터 계정에 250만 건 이상의 트윗을 발생시켰다.

## COP21

### 환경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의 인식 제고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맞아 TF1 그룹 소속 Ushuaia TV는 에너지 전환, 바다와 대양, 녹색 도시, 미래의 건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테마에 거의 400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800 건 이상의 사안을 TF1 및 LCI 뉴스를 통해 방영하였다.

## 2015년 사업현황

TF1은 프랑스 제1 위 민영 방송 그룹으로서, 2015년 4 세 이상 개인 시청률 27.7%, 50 세 이하 여성 시청률 32.0%를 기록하였다.

### 제1 시청각 그룹의 입지 공고화

TF1은 2015년 4 세 이상 개인 부문의 시청률 21.4%를 기록함으로써 리더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광범위한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기에 전 프로그램 통산 2015년 100대 최고 시청률 중 98 건을 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TF1 그룹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TMC, NT1, HD1)은 크게 약진하여 구매를 책임지는 50 세 이하 여성 누적 시청률 8.6%(+ 0.9 포인트)를 달성하였다. 예를 들어 1월 TMC에서 방영된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전의 경우 최대 330만 명이 시청하였다.

TF1은 MYTF1 플랫폼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함으로써, 공중파 4 개 채널의 디지털 콘텐츠 및 100% 디지털 콘텐츠를 단일 플랫폼에 모았다.

자사의 디지털 플랫폼에 힘입어 TF1 그룹은 동영상 조회수 5 위를 점하며 유튜브나 데일리모션 등 국제적인 거대 동영상 제공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 2015년 수익성 향상

2015년 TF1 그룹의 매출액은 20억 4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 하락하였으나 동일한 범위와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감소(- 2%)에 그쳤다.

공중파 채널의 광고 매출액은 특히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들의 공급 증가에 따른 광고시장의 강한 압박으로 인하여 0.5%의 경미한 하락세를 보였다.

비용 조절 및 피파 월드컵 비개최년도라는 점에 힘입어 경상영업이익은 1500만 유로 증가한 1억 58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그룹 지분 순이익은 1억 유로에 달했다. 2014년의 순이익은 유로스포르츠 인터내셔널 매각에 따른 3억 2800만 유로의 매도 이익을 포함했었다.

한편 2015년 말 TF1 그룹이 보유한 순현금은 7억 1백만 유로로, 디지털과 콘텐츠 개발을 계속할 만한 충분한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정보:  
> [www.groupe-tf1.fr](http://www.groupe-tf1.fr)  
> Twitter: @GroupeTF1

오락 프로그램 <코-란타> 촬영현장에서





1



3



2



4

1. TF1의 직원이자 피프티-피프티 네트워크 창립자 앙젤리크 테시에, 셀린 루, 마리 귀요 2. 알랑 코벤의 <기회는 이번뿐(Une chance de trop)>에 출연한 리오넬 아벨랑스키, 알렉상드라 라미, 장-프랑수아 블레릭, 아리엘 세메노프 3. 럭비 월드컵과 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을 방영한 TF1은 2015년의 이벤트 메이커이자 프랑스 국가대표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했다. 4. MYTF1은 이제 TF1, TMC, NT1, HD1의 디지털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한다.

## 2015년 집중 조명

**시청률.** TF1은 2015년 100대 최고 시청률<sup>a</sup> 중 32 건을 기록함으로써 프랑스 픽션 부문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TF1은 픽션 부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정책을 전개한 결과, 자사 픽션 브랜드를 100대 시청률 안에 들게 한 유일한 채널이 되었다. 그중 특히 <랑프리즈(L'Empire)>(980만 명 시청)와 <기회는 이번뿐(Une chance de trop)>(910만 명 시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BIENVENUE LCI.**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2015년 12월 17일 LCI의 무료 방송 전환을 허가하였다. 1994년부터 프랑스 뉴스 전문 채널의 선구자 역할을 한 LCI는 이로서 회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LCI는 2016년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게 된다.

**양성 고용 비율 균형.** 2015년 TF1의 여성 직원 세 명이 창립한 피프티-피프티는 프랑스 미디어 부문 최초의 양성 네트워크이다. 약 130명 이상의 구성원 중 20% 정도가 남성이며, TF1 그룹 내에서 양성 고용 비율 균형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관이다.

PWN-Paris(Professional Women's Network - 전문직 여성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동시에, 회사내 전직종 직원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었다.

**혁신.** TF1은 2015년 9월 정보과학 부문의 전문성과 혁신적 교육법으로 유명한 학교인 에피테크(Epitech)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개발을 돕는 가운데 아이디어의 발생 시점부터 함께 하는 것이다.

## DJSI<sup>b</sup> 월드 지표

CSR<sup>c</sup> 부문의 기준이 되는 세계적 증시 지표인 DJSI 월드 지표가 2015년에도 TF1 그룹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인정하여 은메달을 수여하였다.

(a) 출처: 미디어메트리  
(b) 다우 존스 지속가능지표  
(c)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5년부터 부이그 텔레콤의 새로운 매장들은 고객들이 밟아야 하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 한층 쾌적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벨리지 2 쇼핑센터(이블린 지방)의 매장.





# 고객에게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하는 부이그 텔레콤

프랑스 전자통신 시장의 주요 기업  
부이그 텔레콤은 다양한 사용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자 한다.

## 2015년 주요 지표

총직원수

7,947명

매출액

45.05억 유로 (+2%)

EBITDA<sup>a</sup>

7.52억 유로 (+8%)

고객수

1470만 명

(a) 순감가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 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산한  
경상영업이익



1470만 명의 부이그 텔레콤 고객들은 뛰어난 무선 및 유선 통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도 깊은 변화를 달성한 부이그 텔레콤은 역동적인 영업실적과 새로운 경제 모델에 힘입어 또 다시 영속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략**

부이그 텔레콤은 신뢰받는 통신사업자로서 고객들이 디지털의 혜택을 심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다음 3대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사용법을 개발함으로써 가치 창출**

프랑스 내 4G 네트워크의 우수한 품질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이그 텔레콤은 시장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4G 네트워크 커버리지 75 %를 달성한 부이그 텔레콤은 새로운 기지국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커버리지 82 %, 2018년 말 커버리지 99 %를 목표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또한 자사 모바일 네트워크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파

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였다. 두세 주파수 대역을 결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최대 300 Mbit/s에 가까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질의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이그 텔레콤은, 모바일 인터넷 소비 잠재력이 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통신 사용 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유선통신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

부이그 텔레콤은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를 증가시킨다는 목표 하에,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ADSL<sup>a</sup> 및 FTTH<sup>b</sup> 상품군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유선통신 인프라(ADSL 및 FTTH)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 고객 부문 사업 및 사물 인터넷<sup>c</sup> 사업 개발**

기업 고객 부문 사업은 4G 네트워크 출시 이후 매우 역동적인 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다. 유선 통신 부문의 사업 개발과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로 부이그 텔레콤 앙트르프리즈의 고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새로운 자회사 오브제

니우스를 통해 사물인터넷용으로 특화된 요금제를 고안하여 제공함으로써 동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p.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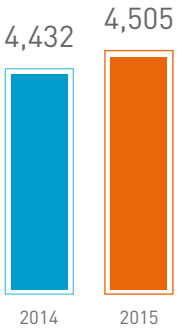
**강점**

- **모바일 고객 1190만 명, 고속인터넷 고객 280만 명.**
- **자타가 품질을 인정하는 고성능 유무선 통신망.**
- **넓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접근성.**
- **독보적인 포지셔닝: "#NosClientsDabord".**
- **매력적인 모바일 및 유선 요금제.**
- **최적화 및 개별화된 고객 체험.**
- **뛰어난 적응력.**

(a)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b) Fiber To The Home(집안까지 광케이블이)  
 (c) 영어로 Internet of Things(IoT)라 불리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사물들 간의 정보 교환을 일컫는 말이다

##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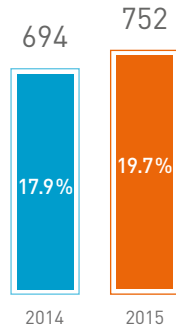


(a) 순감가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 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산한 경상영업이익  
(b) EBITDA 대비 네트워크 매출액

## EBITDA<sup>a</sup>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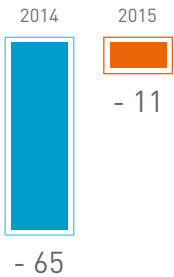
EBITDA율 (단위: %)<sup>b</sup>



(a) 순감가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 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산한 경상영업이익  
(b) EBITDA 대비 네트워크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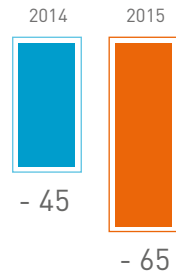
##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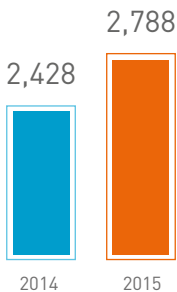
##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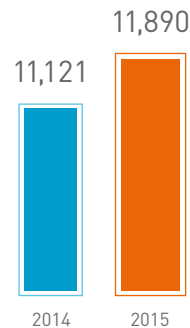
## 유선 고속 인터넷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 모바일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 2015년 주요 사항

4 개의 보너스 서비스(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카날 플러스 스타트, 무제한 BTV, 게임 로프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사사용 요금제의 혜택이 증가하였다.

Bbox 마이애미의 상업 출시.

주파수 700 MHz 대역의 5 MHz 폭 취득. 부이그 텔레콤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 증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부이그 텔레콤 앙트르프리즈와 텔레포니카의 합작사인 텔레포니카 글로벌 솔루션스 프랑스 창립.

## 고객 서비스

### 부이그 텔레콤, 고객위원회를 창설하다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의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객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고객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개선 제안, 신상품 개정, 문체적 피드백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 위원회는 특히 2015년 크리스마스 특관 상품<sup>a</sup>을 고안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고객위원회는 "#NosClientsDabord" 접근방식으로 시작한 이니셔티브의 결실이다. 고객위원회 블로그 조회: [blog.bouyguestelecom.fr](http://blog.bouyguestelecom.fr).

(a) 6 개월 동안 주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

## 도시를 위한 서비스

### 오브제니우스, 사물을 연결하다

통신에 연결된 사물을 위한 LoRa(장거리를 의미하는 Long Range의 약자) 네트워크는 다양한 응용분야(네트워크에 연결된 도시 시설물, 지능형 주차장 등)에 사용되어 도시의 환경 발자국을 줄여 준다.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은 향후 세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술을 전개한 최초의 통신사 중 하나였다. 또 자회사 오브제니우스를 창설하였는데, 오브제니우스는 2016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e réseau 4G  
dont vous  
pouvez  
vraiment profiter.

Découvrez nos forfaits 4G Sensation et B&YOU  
bouyguetelecom.fr

2015년 11월 부이그 텔레콤이 개시한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 2015년 사업현황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은 모바일 및 유선통신 부문의 공세적 전략과 심도 깊은 사업개편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뛰어난 영업실적

2015년은 부이그 텔레콤이 모바일 부문 영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한편 전년도에 이어 고객들에게 4G를 신속하게 보급한 한해였다.

양질의 4G 네트워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새로운 포지셔닝을 통하여 부이그 텔레콤은 모바일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 이탈률을 낮출 수 있었다.

2015년 말 기준 부이그 텔레콤의 **모바일 고객**은 1190만 명으로, 1년간 요금제(MtoM<sup>®</sup> 제외) 고객 순증가 수는 543,000 명이었다.

4G 사용 고객은 510만 명<sup>°</sup>으로, 모바일(MtoM 제외) 고객의 51%에 달했다.

유선 고속 인터넷 시장<sup>d</sup>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매력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하였다. 2015년 초 출시된 Bbox 마이애미(월 25.99 유로)는 2014년 출시된 Bbox ADSL의 뛰어난 영업실적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2015년은 또한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FTTH<sup>e</sup> 케이블 영업을 개시한 해이기도 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부이그 텔레콤은 360,000 명의 신규고객을 유치하였는데, 이는 유선 통신 시장 최고의 순성장 사례 중 하나였다.

### 재무실적 향상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은 뛰어난 영업실적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하여 재무실적을 향상시켰다.

2015년 매출액은 성장을 재개하여 45억 5백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기업의 대대적인 단순화와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힘입어 EBITDA<sup>f</sup>(2015년 7억 5200만 유로, 2014년 대비 5800만 유로 증가)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 (a) 이탈하는 고객 수 대비 충고객 수(churn)
- (b) Machine to Machine(사물지능통신)
- (c) 지난 3개월 동안 4G를 사용한 고객(프랑스 통신규정청(ARCEP)의 정의)
- (d) 고속 및 초고속 유선 인터넷 가입자 포함
- (e) Fiber To The Home(집안까지 광케이블이)
- (f) 순감가상각배정액과 순준비금 및 감가상각 배정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준비금 및 감가상각금 재편입분을 감소한 결산영업이익



상세 정보:

> [www.bouyguetelecom.fr](http://www.bouyguetelecom.fr)

> Twitter: @bouyguetelecom



1. 2015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취득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더욱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2015년 초 Bbox 마이애미 출시 3. “#NosClientsDabord” 포지셔닝을 통해 고객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략 추구 (사진은 벨리지 부이그 텔레콤 매장의 영업 담당자 살로메 벨리리).

## 2015년 집중 조명

**보다 빠른 네트워크, 보다 편리한 통신 이용.**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은 통신 사업자 중 최초로 세 주파수 대역을 결합함으로써 “초고속” 4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최대 300 Mbit/s에 가까운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편의를 더욱 증가시켰다.

현재 샤프트르, 리옹, 마르세이유, 파리 일부 지역에서 이 새로운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프랑스의 모든 대도시에 이 서비스가 전개될 예정이다.

**고객 체험 향상.** 2015년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서비스 톨의 세계적 리더사인 세일즈포스와 함께 디지털 다채널 플랫폼을 설립하였다. 이 톨은 고객의 연락 방식에 상관없이 고객 서비스를 유연화하고 정보를 단일화할 수 있게 한다.

부이그 텔레콤은 또한 고객 체험을 향상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자사 매장망의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 말까지는 전매장이 이 새로운 컨셉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개방적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부이그 텔레콤 이니셔티브(BTI)는 창립 이후 프로젝트 1000 건을 검토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 29 건을 수행했으며 9 건의 프로젝트에 지분참여를 하였다. 2015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Bbox 마이애미는, BTI가 15%의 지분참여를 한 벤처 기업 아이필스마트가 개발한 혁신적인 TV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BTI는 파트너 네트워크(창업 인큐베이터, 창업 진흥원, 기금)와의 협력하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SNS)과 자사 인터넷 사이트 [www.btinitatives.fr](http://www.btinitatives.fr)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FTTH 광케이블.** 2015년에도 부이그 텔레콤은 FTTH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전개를 계속하였다. 2015년 말 기준 FTTH 광케이블 네트워크 연결 플러그를 150만 개 판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50만 개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FTTH 요금제 판매를 개시하였다.

**75%**

부이그 텔레콤의 4G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프랑스인 비중  
(2016년 1월 1일 기준, 프랑스 본토)

## 알스톰: 교통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

지속가능교통을 진흥하는 알스톰은 철도 부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안한다.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알스톰은 통합 철도 시스템 부문의 세계적 리더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 첸나이 지하철이  
2015년 6월 개통되었다.

2015년 11월 2일, 알스툼은 약 124억 유로에 에너지 부문(알스툼 파워와 알스툼 그리드)을 제너럴 일렉트릭(GE)에 매각하는 절차를 종료하였다. 총직원 32,000명의 알스툼은 이제 철도교통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부이그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29.2%의 지분 및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 철도교통 시장의 기준점으로서 부상

도시화가 날로 진행됨에 따라 철도교통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1-2013년 기간 동안의 접근 가능 전세계 연간 철도시장은 1020억 유로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연평균 2.8%<sup>a</sup>의 성장을 계속하여 2017-2019년 기간에는 연평균 12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솔루션 라인업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전세계 5 대륙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알스툼은 차량, 시스템, 서비스, 신호 부문의 선두주자이다.

**2020년을 목표로 야심 찬 전략 수립**  
알스툼은 2020년까지 교통 솔루션 부문에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가 되다는 목표 하에 전략을 수립, 전개하고 있다.

- **고객 지향적 기업 조직:** 전세계 60개국에 진출한 알스툼은 전세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현지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다.
- **종합적인 솔루션 라인업:** 철도 교통 전문(차량, 시스템, 서비스, 신호)에 전문성을 보유한 알스툼은 고객에게 총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하우를 복합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알스툼은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뛰어난 솔루션을 낮은 보유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혁신은 경쟁력과 차별화의 원천이며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열쇠이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인수한 그레인 밸리 사업장의 알스툼 직원

- **탁월한 사업 및 환경 성과:** 고객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알스툼은 계약 실행시 품질, 비용, 납기의 우수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에 임하는 가운데 시장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환경 성과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
- **다양성과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기업 문화:** 알스툼은 직원을 사이의 모든 형태의 다양성(양성 균형 배분, 다문화 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 책임감, 신속한 대응력을 고무하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 실적

### 2015/16 회계년도 첫 9 개월

2015/16년 회계년도 첫 9 개월(2015년 4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알스툼의 수주액은 63억 유로였는데, 전년 동기의 수주액은 남아공의 40억 유로 규모 계약을 포함하여 총 80억 유로였다.

알스툼의 매출액은 2014/15년 첫 9 개월 대비 8%(동일 범위와 환율을 적용할 때 3%) 증가한 4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수주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은 1.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주잔액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87억 유로로, 4 년간의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a) 출처: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 - 2014

## 주요 사항

### 2015/16 회계년도 상반기

- 아제르바이잔의 화물용 기관차 50 대.
- 카자흐스탄의 화물 및 여객용 전기기관차 25 년 유지보수계약.
- 탈레스와 공동으로 홍콩 지하철의 다수 노선 신호 시스템 업데이트.
- 알제리의 코라디아 다기능 도시간 열차 17 대.
- 파나마의 두 번째 통합 지하철 시스템.

### 2015/16 회계년도 3분기

- 이탈리아의 펜들리노 고속철 추가 차량 8 대 및 20 년 유지보수 계약.
- 스위스의 이중 모드 기관차 47 대.
- 봄바디어 트랜스포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벨기에의 M7형 이층 차량 1,362 대.

**GROUPE BOUYGUES**  
부이그 그룹

본사  
32 avenue Hoche  
F-75378 Paris cedex 08

전화: +33 1 44 20 10 00  
bouygues.com  
트위터: @GroupeBouygues

**TF1**

본사  
1 quai du Point du jour  
F-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전화: +33 1 41 41 12 34  
groupe-tf1.fr  
트위터: @GroupeTF1

**BOUYGUES TELECOM**  
부이그 텔레콤

본사  
37-39 rue Boissière  
F-75116 Paris

전화: +33 1 39 26 60 33  
corporate.bouyguestelecom.fr  
트위터: @bouyguestelecom

**BOUYGUES CONSTRUCTION**  
부이그 건설

본사  
Challenger  
1 avenue Eugène Freyssinet - Guyancourt  
F-78065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전화: +33 1 30 60 33 00  
bouygues-construction.com  
트위터: @Bouygues\_C

**BOUYGUES IMMOBILIER**  
부이그 부동산

본사  
3 boulevard Gallieni  
F-92445 Issy-les-Moulineaux cedex

전화: +33 1 55 38 25 25  
bouygues-immobilier-corporate.com  
트위터: @Bouygues\_Immo

**COLAS**  
콜라스

본사  
7 place René Clair  
F-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전화: +33 1 47 61 75 00  
colas.com  
트위터: @GroupeColas

**BOUYGUES**



부이그 그룹 인터넷 및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한 기업개요를 만나실 수 있으며,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춘 태블릿으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